

여고생의 신체발달에 따른 신체이미지 및 자기존중감, 의복태도 형성모델*

Formation Models of Body Image, Self-Esteem, and Clothing Attitudes as
Related to Pubertal Physical Growth*

연세대학교 의류환경학과
교수 고애란
박사 이수경

Dept. of Clothing and Textiles, Yonsei University
Professor : Koh, Ae-Ran
Ph.D. : Lee, Soo-Gyoung

▣ 목 차 ▣

- | | |
|----------------|-------------|
| I. 서론 | IV. 결과 및 논의 |
| II. 이론적 배경 | V. 결론 및 제언 |
| III. 연구방법 및 절차 | 참고문헌 |

<Abstract>

The purposes of this study were to identify 1) the effect of physical growth on body criticism from others and body image, 2) the effect of body criticism from others on sociocultural attitude toward appearance, body image, and self-esteem, 3) the effect of sociocultural attitude toward appearance on body image, 4) the effect of body image on self-esteem and clothing attitude, and 5) the effect of self-esteem on clothing attitude on Korean female teenagers.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436 high school girls living in Seoul, Korea, via 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s, and were analyzed by factor analysis and LISREL models. The result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1) Among three measurement variables of physical growth, the height had a negative effect on body criticism from others. Sexual maturation positively influenced the affective aspect of body image. 2) Body criticism from others had a positive effect on the sociocultural attitude toward appearance and a negative effect on the affective aspect of body image. 3) The sociocultural attitude toward appearance

Corresponding Author: Ae-Ran Koh, Ph. D. Professor Dept. of Clothing and Textiles, Yonsei University 134 Shinchon-Dong Sudaemoon-Gu
Seoul, 120-749, Korea Tel: 82-2-2123-3106 Fax: 82-2-312-5229 E-mail: arkoh@yonsei.ac.kr

* 본 논문은 2002년도 연세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해 수행되었음.

had a negative effect on the affective aspect of body image and a positive effect on the cognitive/behavioral aspect of body image. 4) The affective aspect of body image had a positive effect on the cognitive/behavioral aspect of body image, self-esteem, and clothing attitude. However, the cognitive/behavioral aspect of body image had a positive effect on clothing attitude. 5) Self-esteem had no significant effect on clothing attitude.

주제어(Key Words): 신체발달(physical growth), 신체에 대한 타인의 평가(body criticism from others), 신체적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sociocultural attitude toward appearance), 신체이미지(body image), 자기존중감(self-esteem), 의복태도(clothing attitude)

I. 서 론

사춘기와 함께 시작되는 청소년기의 가장 큰 특징 중의 하나는 급속한 신체발달이다. 키, 체중의 급격한 발달과 발달시기의 개인차는 청소년들로 하여금 자기 신체에 대한 관심을 높이게 하고, 이와 더불어 일어나는 성적성숙으로 인해 새로운 행동변화 및 자아상을 형성하는 기초가 된다(민영순, 1979). 즉 청소년기에는 변화된 신체에 따라 새로운 신체 이미지를 형성해야 하는데(Stuart, 1983), 이때 형성된 신체이미지는 청소년기의 주 발달과제인 자기존중감의 형성에 영향을 주고(송인섭, 1998), 성인이 된 이후에도 자기개념 및 사회성 발달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중요하다(윤진, 1993).

청소년들은 이 시기에 겪는 생리적 변화로 인한 불안을 감소하기 위해, 유사한 상황에 있는 또래집단과 어울리고 싶어 하는 유친 동기가 생기고, 이와 함께 새로운 심리적·사회적 환경에 적응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구하고자 자신과 또래와의 사회비교 동기도 커지는데, 신체적인 외모나 매력은 객관적인 평가기준이 없기 때문에 청소년들은 자신을 타인과 비교하여 신체에 대한 평가를 하게 된다(Festinger, 1954). 이러한 과정에서, 청소년들이 가지는 자기 신체에 대한 평가는 기존 사회의 가치관이나 통념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으며(Richards et al., 1990), 자신의 신체에 대해 긍정적, 부정적 태도를 가짐으로써 자신감이나 위축감이 생기고, 신체변화에 따른 이상적인 신체이미지와 자신의 외모와의 차이를 좁히기 위해 노력하며 의복을 통해 신체적 문제를 극복하려 한다(Rudd & Lennon, 1994).

이와 같이 개인이 신체를 보는 방법이나 신체에

대한 만족도는 그 시대의 사회·문화적 기준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즉 개인은 사회적 이상을 내면화하면서 자신의 신체를 평가하게 된다(Kaiser, 1990). 따라서 자신의 신체상이 사회의 문화적 기준이 만들어 내는 신체상에 가까우면 긍정적인 신체적 자아를 갖게 되고 이로 인해 자기개념도 높아진다. 반면에 사회의 문화적인 기준과 차이가 있을 때에는 이상적인 신체모습과 자신과의 차이를 극복하여 자신의 신체상을 변화시키려고 노력하게 된다. 그러한 노력으로서 의복이 부여하는 혜택을 추구하고 다이어트 등 외모관리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청소년기에는 급격한 신체변화로 인해 신체 및 외모에 관심이 집중되어 의복행동을 비롯한 외모관리행동에 관심이 증가하게 되며, 근래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청소년들 사이의 지나친 체중조절이나 미용성형 등의 주요 원인이 자신의 신체에 대한 불만족에서 비롯된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따라서 청소년기에 있어서 신체적 외모가 심리적 적응과 외모관리행동 등의 청소년들의 생활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할 수 있는 기제를 구축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즉, 청소년들의 사춘기 신체발달과 더불어 사회·문화적 기준에 의해 이들의 신체이미지, 자기개념 및 의복태도가 어떻게 형성되는지 규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여고생들의 신체성장과 이차성징과 같은 신체 변화가 사회·문화적 외모규범의 영향을 받아 신체적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를 형성하고, 이에 의해 신체이미지가 형성되고, 나아가 이러한 신체이미지에 의해 자기존중감과 의복태도가 형성되는 과정을 밝히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사춘기 신체변화

사춘기는 호르몬 수준의 증가에 따라 성적 성숙이 명백해지고 이러한 내적인 변화가 제 2차 성장의 발달과 성장급등으로 나타나는 시기이다(Conger, 1991). 따라서 사춘기와 함께 시작되는 청소년기는 신체적인 변화가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며 전반적인 자기 지각에 있어서 신체적인 지각이 중요성을 갖는 시기이다(Stuart & Sundeem, 1995). 청소년기의 생물학적인 변화들이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이들의 생활에서 중요한 타인들 즉, 또래나 어른 등의 반응을 통해서 간접적인 영향으로 나타나는데 (Schiamberg, 1988). 사춘기의 신체적 변화는 타인들로부터의 놀림과 같은 부정적인 반응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Brooks-Gunn et al., 1987).

일탈가설(deviance hypothesis)에 따르면 사춘기 신체변화가 정상연령 범위를 벗어나 빠르거나 늦게 나타나는 것이 청소년을 사회적으로 정상에서 벗어난 부류로 간주하기 때문에 적응에 어려움이 발생하게 된다(Alsaker, 1995). Williams와 Currie(2000)의 연구에서는, 11세의 조기성숙한 여학생들이 신체이미지와 자기존중감을 낮게 평가하고, 13세에서는 늦은 성숙자들이 자신의 신체를 초라하게 지각하고 자기존중감을 낮게 평가하였다. Alsaker(1992)의 연구에 따르면, 6학년(13세) 소녀들에서는 자신을 이른 성숙자로 지각한 소녀들이 자신의 신체에 대해 만족도가 낮았으며, 8학년(15세)에서는 자신을 부적기(늦거나 빠른)로 지각한 두 집단의 소녀들이 '정상 성숙'이라고 지각한 소녀들 보다 신체불만족이 더 높은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연령이 증가하여 후기 청소년기에 이르러 준거집단의 대부분이 사춘기를 경험하는 동안 미성숙한 외모를 갖는 것은 그 나이또래의 신체적 외모에 예외적인 것으로 지각되므로 후기 청소년기 연령에서는 늦은 성숙의 부정적인 효과가 크게 나타날 것이다.

2. 신체에 대한 타인의 평가

청소년기에는 자신에 대한 타인의 평가를 중요하게 생각하며(박영남, 1993), 주위로부터의 부정적인 평가는 내면화를 통해 자기개념을 저하시키거나 청소년기의 정체감 형성에 위협적인 요인이 된다(Stuart & Sundeem, 1995). Harter(1990)의 연구에서, 청소년들의 자기평가는 그들이 중요성을 부여하는 타인이 자신에 대해 내리는 평가에 큰 영향을 받았으며, 이때 청소년들이 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영역은 외모나 신체적 매력으로 나타났다.

신체적 매력에 대한 기준은 가족 또는 사회 전체의 이상적인 미에 대한 통념에 의해 사회화과정을 거치면서 형성되며 이러한 사회화를 통해 청소년들은 스스로의 신체와 외모에 대한 기대를 형성하게 된다. Levine 등(1994)의 연구에 따르면 청소년기 초기 여학생들이 이상적인 신체를 내면화 하는데 있어서 체중에 대한 가족과 또래의 비판이 영향을 미쳤으며, 여고생을 대상으로 한 Stice 등(1998)의 연구에서도 마른 신체에 대한 계속적인 사회적 압력은 신체에 대한 이상화된 고정관념을 내면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신체적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개인이 신체를 보는 방법이나 신체에 대한 만족도는 그 시대의 사회·문화적 기준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청소년이 지닌 자신의 외모에 대한 고민 속에는 부모, 친구, 대중매체에 의해서 전달된 이상적인 영상을 갖게 되는 신체이미지에 대한 문화적인 영향이 내재되어 있는 것이다(Elder, 1968). 이처럼 사회 속에는 사회적 신체가 존재하고 개인은 사회의 이상적 신체라는 형태에 대한 내면화된 정신적 태도와 의식을 가지며, 이러한 태도와 의식은 행동을 일으키는 잠재적인 힘으로 작용한다 (Mauss, 1935). 여고생을 대상으로 한 Stice 등(1998)의 연구에서는 이상적인 신체에 대한 사회적 고정관념을 내면화할수록 신체불만족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조선명·고애란(2001)의 연구에 따르면

이상적인 신체에 대한 사회적 기준을 자신의 가치로 내면화하는 사회·문화적 태도가 형성되면, 자신의 외모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며 이에 따라 자신의 신체에 대한 만족, 불만족이 형성되고, 자신의 외모에 대한 관심을 갖고 외모향상을 위한 능동적 성향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신체이미지

신체이미지는 자신의 신체에 대한 지각·느낌·태도를 포함하는 정신적 표상으로(송명자, 1995), 신체의 성장과 타인과의 상호작용의 증대 그리고 개인의 사회의 규범과 가치를 내면화함에 따라 계속적으로 변화하는 동태적 개념이다(Meijboom et al, 1999).

청소년기 동안에 경험하는 신체적, 심리적 변화는 신체이미지에 영향을 미치는 하나의 중요한 요인이며, 신체에 대한 만족감은 청소년기의 주 발달과제인 자기존중감의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송인섭, 1998). 이계원(1994)의 연구에서, 개인이 신체에 대하여 가지는 감정은 그 자신에 대하여 갖는 감정과 유사하여 외모에 대한 부정적인 인상을 갖고 있는 학생은 낮은 자기존중감을 갖고 있다는 것을 밝혔다.

또한 신체에 대한 만족은 의복과 관련된 자기개념 요소들 중 가장 많이 언급되는 요소로 의복은 신체에 대한 불만족을 보상하며 신체이미지는 의복에 반영되므로(Sontag & Schlater, 1982), 의복 선택에 근본적인 영향을 미친다(Creekmore, 1974). 송경자·김재숙(1999)의 연구에서는 긍정적인 신체이미지를 지닌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의복에 대한 관심이 높고 과시성과 심리적 의존성이 높았다. 한편 사회비교 결과 생긴 만족 혹은 불만족의 자기감정과 자신에 대한 인지는 이를 유지, 혹은 향상하기 위한 행동적 결과로 이어지게 된다(조근영, 1997). 조선명·고애란(2001)의 연구에 따르면, 청소년기 여학생은 자신의 신체에 긍정적인 평가와 감정을 가질수록 외모향상을 위한 능동적 성향이 커지며, 외모지향성이 높을수록 의복을 통해 개성과 자기표현의 혜택과 긍정적인 기분, 그리고 이상적인 신체모습을 위한 혜택을 추구하였다. 10대 남녀 청

소년을 대상으로 한 이미숙(2000)의 연구에서도 의복과 체중에 대한 관심이 많을수록 유행이나 의복에 많은 관심을 가지며, 심리적으로 의복이 주는 분위기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았으며, 연예인의 외모와 웃차림을 모방하였다.

5. 자기존중감

자기존중감은 자기개념의 평가적 구성요소로서 자기가 자신을 좋아하는 정도를 말하며 자기개념의 매우 중요한 한 요소이다(강혜원, 1995). 특히 자아정체를 탐색하고 자기에 대한 개념을 형성해 가는 시기인 청소년기에 자기에 대해 가지는 스스로의 평가는 청소년의 주관적 삶에서 중심적 역할을 하고, 사고, 감정, 행동 등 모든 영역에 대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Maslow, 1970).

의복은 개인의 가장 가까운 물질 환경 및 자아의 외적 표현으로써, 한 개인의 의복에 대한 만족감은 긍정적인 자기개념과 신체만족도를 반영하며, 의복에 대한 만족이나 불만족에 대한 표시는 자기 자신에게 갖는 긍정 또는 부정적인 시각을 예측할 수 있는 단서가 된다(강혜원, 1995). 남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김순구·윤학자(1986)의 연구에서, 자기존중감이 높을수록 의복의 심미성과 관리성은 높으나 의복의 흥미성, 심리적 의존성, 사회적 승인성, 주의집중성은 낮게 나타났으며 이에 대해 자기존중감이 높으면 심리적으로 안정되므로 의복을 통한 사회적 인정에는 관심이 적은 것으로 해석되었다. 한편, 여대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Ford & Drake, 1982)에서는 자기존중감이 높을수록 의복실험을 즐기며 의복 흥미가 높고 웃을 멋있게 통합해서 착용할 수 있다는 긍정적 느낌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III. 연구방법 및 절차

1. 연구가설

본 연구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이론적 배경

을 토대로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하였으며, 연구의 모형은 <그림 1>에 제시하였다.

<가설 1> 신체성장 수준은 신체에 대한 타인의 평가, 신체이미지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1> 신체성장은 신체에 대한 타인의 평가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2> 신체성장은 신체이미지의 감정적 차원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 신체에 대한 타인의 평가는 신체적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신체이미지, 자기존중감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1> 신체에 대한 타인의 평가는 신체적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2> 신체에 대한 타인의 평가는 신체이미지의 감정적 차원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3> 신체에 대한 타인의 평가는 자기존중감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 신체적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는 신체이미지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1> 신체적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는 신체이미지의 감정적 차원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2> 신체적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는 신체이미지의 인지적/행동적 차원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4> 신체이미지는 자기존중감과 의복태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4-1> 신체이미지의 감정적 차원은 자기존중감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4-2> 신체이미지의 감정적 차원은 의복태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4-3> 신체이미지의 감정적 차원은 신체이미지의 인지적/행동적 차원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4-4> 신체이미지의 인지적/행동적 차원은 자기존중감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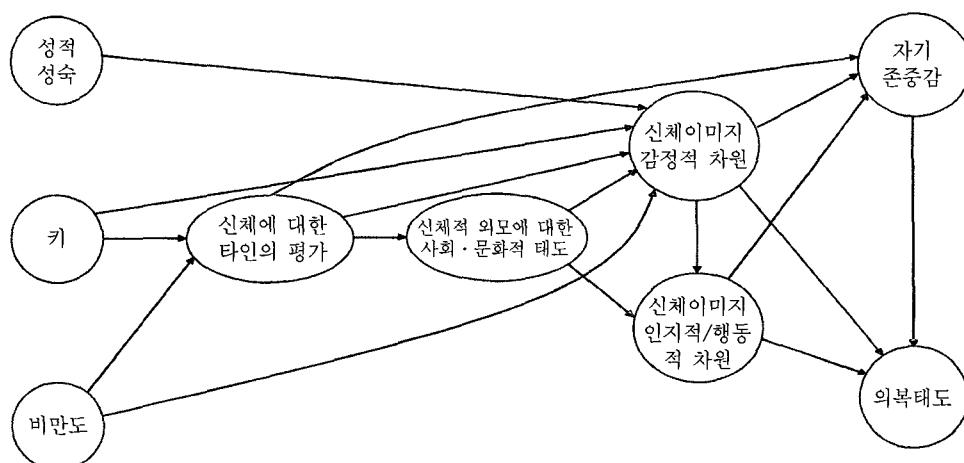
<가설 4-5> 신체이미지의 인지적/행동적 차원은 의복태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5> 자기존중감은 의복태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2. 측정도구

1) 신체성장 수준

신체성장 수준은 성적성숙, 키, 비만도의 세 측면



<그림 1> 신체성장 수준에 따른 신체이미지 및 자기존중감, 의복태도 형성모델

을 포함하였다. 성적 성숙은 Petersen, Crockett, Richards, & Boxer(1988)가 개발한 사춘기발달척도(Pubertal Development Scale: PDS)를 사용하였으며, 여학생들의 가슴발달, 체모발달정도를 묻는 2문항으로서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67$ 이었다. 키와 체중은 자유기술식으로 응답하도록 하였으며, 키와 체중을 사용하여 비만도를 나타내는 신체충실지수(Rohrer Index)를 계산하였다.

2) 신체에 대한 타인의 평가

신체에 대해 타인으로부터 받고 있는 평가가 어느 정도인지를 측정하기 위해 Guiney & Furlong(1999)이 개발한 신체비판척도(Body Criticism Scale)를 수정·보완하여 6문항을 사용하였다. 키, 체중, 외모에 대해 각 2문항씩 제시하여 아버지, 어머니, 같은 반 아이들, 친한 친구, 선생님, 그 이외의 기타 사람 등이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를 4점 Likert형 척도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각각의 신뢰도는 $\alpha = .67, .69, .58$ 로 나타났다.

3) 신체적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신체적 외모의 중요성과 이상적인 사회 기준에 대한 개인의 태도를 평가하기 위해, Heinberg 등(1995)이 개발한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설문 문항(Sociocultural Attitude toward Appearance Questionnaire: SATAQ)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8문항의 내면화(Internalization)와 6문항의 인식(Awareness)의 2가지 하위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신뢰도는 $\alpha = .84, .62$ 로 나타났다.

4) 신체이미지

신체이미지에 관한 측정도구는 Cash(1990)가 개발한 신체-자아에 관한 다차원척도(Multi-dimensional Body-Self Relations Questionnaire: MBSRQ)에서 신체적 외모와 관련된 하위척도들을 선택하여 사용하였으며, 신체이미지의 감정적 차원과 인지적/행동적 차원으로 구성되었으며, 국내에서의 타당도가 검증된 조선명·고애란(2001)의 연구결과를 참조하여 문항을 선택하였다. 신체이미지의 감

정적 차원은 MBSRQ의 4문항의 외모평가와 15문항의 신체만족도의 두 가지 척도로, 신체이미지의 인지적/행동적 차원은 MBSRQ의 9문항의 외모지향성 척도로 측정하였다. 모두 5점 Likert형 척도로, 신뢰도는 $\alpha = .56, .86, .84$ 이었다.

5) 자기존중감

청소년의 자기존중감을 측정하기 위해 Rosenberg(1965)의 자기존중감 척도를 변안하여 사용하였다. 10문항의 4점 Likert 척도로 측정하여, 신뢰도가 낮은 1문항은 제거하고 9문항이 자료분석에 사용되었으며, 신뢰도는 $\alpha = .80$ 로 나타났다.

6) 의복태도

의복태도는 김양진(1996), 고애란·이수경(1998), 조선명·고애란(2001)의 선행연구에서 의복과 시성, 사회적 승인성, 심리적 의복의존성, 신체모습향상 등의 측면을 다루는 문항들을 선택하여 총 14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5점 Likert 형 척도이다.

3.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본 연구를 위한 조사대상은 서울 소재의 고등학교 2학년 여학생 436명(강남: 203명, 강북: 233명)이었다. 조사기간은 2002년 7월 16일에서 8월 7일까지였으며, 총 45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여 438부가 회수되었으며, 그중 불성실한 응답을 제외한 436부가 자료분석에 사용되었다. 자료분석은 SPSS PC⁺와 LISREL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요인분석과 공변량구조분석(Covariance Structure Analysis)을 실시하였다.

IV. 결과 및 논의

1. 의복태도에 관한 요인분석

의복태도를 요인분석(PC model, Mineigen Criterion, Varimax Rotation)한 결과 3개의 요인이 도출되었으며, 여러 요인에 대해 낮은 부하량을 나타

낸 3문항은 제외되었다. 총 설명력은 58.5%이며, 그 결과는 <표 1>과 같다. 요인 1은 타인의 눈에 띠어 타인의 관심의 대상이 되도록 하는 문항들이 함께 묶여 의복과시성이라 명명하였다. 총 6문항으로 설명력은 23.39%를 나타내었다. 이 요인에 신체모습향상과 심리적의복의준성 측면을 표현하는 문항이 함께 묶였으나 이는 청소년기 여학생들에게 있어서 이상적인 몸매로 보이는 의복을 입거나 좋아하는 의복에 따라 행동이 달라지는 것이 의복을 통해 과시를 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요인 2는 사회적 승인성 요인으로, 집단내의 소속감과 인정을 얻기 위하여 자신의 준거집단 사람들과 비슷한 스타일의 의복을 착용하는 행동과 태도를 나타내는 3문항이 포함되었다. 설명력은 17.61%이다. 요인 3은 신체모습향상이라고 명명하였으며, 총 2문항으로 17.5%의 설명력을 나타내었다.

2. 신체성장 수준에 따른 신체이미지 및 자기존중감, 의복태도 형성모델의 검증

본 연구 모델의 검증결과는 <그림 2>에 제시하였

다. 모델의 적합도는 $\chi^2(df=75, N=436) = 213.97$ 이었으나, GFI의 값이 .94, AGFI 값도 .90으로 양호한 값을 나타내었다. 또한 관찰변수와 잠재변수간의 값이 모두 유의수준 $p=.001$ 에서 유의하여, 각 관찰변수들이 잠재변수를 적합하게 측정하였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구성타당도가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설정한 모델이 적합한 것으로 검증되었으며, 가설검증 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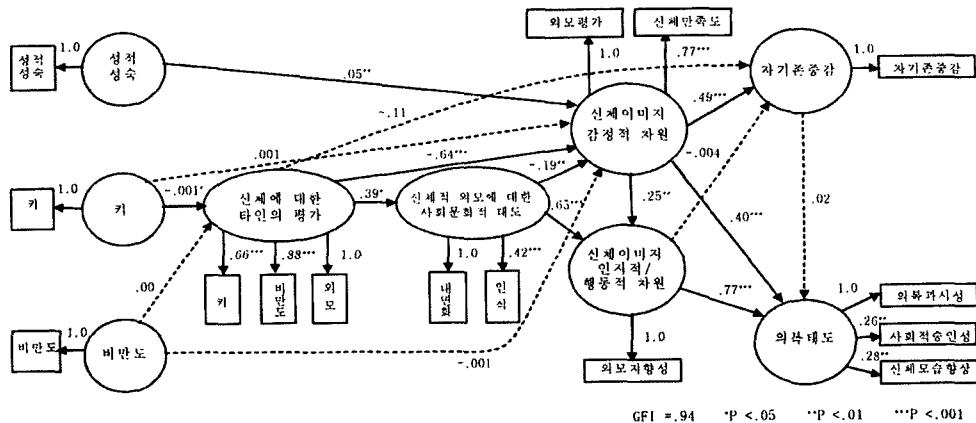
1) 신체성장 수준과 관련변인과의 관계

신체성장 수준이 신체에 대한 타인의 평가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1-1>은 부분적으로 채택되었다. 키가 신체에 대한 타인의 평가에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고등학교 여학생들에게 있어서는 키의 성장이 성인과 비슷한 수준에 이르게 되므로, 키가 또래에 비해 작은 여학생들은 성장정도가 늦은 것으로 가시적으로 드러남으로써 사회적 표준에 벗어난 것으로 간주되어 부정적인 평가를 받게 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비만도는 신체에 대한 타인의 평가에 유의미한 영

<표 1> 의복태도의 요인분석 결과

N=436

문항내용	요인1	요인2	요인3
요인 1: 의복과시성			
나는 어떤 모임에서나 관심의 대상이 될만한 눈에 띠는 옷을 입고 싶다.	.79	.14	.13
같은 스타일, 같은 값의 옷이라면 눈에 띠는 색상의 옷을 선택하겠다.	.72	-.02	-.02
나는 남의 눈을 끌지 않는 평범한 옷을 선택하는 편이다.	.70	-.18	-.15
나는 나를 돋보이게 하는 옷을 고르려고 노력한다.	.68	.24	.30
나는 내 몸매가 이상형에 가깝게 보이도록 옷을 입는다.	.48	.37	.37
내가 입은 옷에 따라 내 행동이 달라지곤 한다.	.46	.35	.40
요인 2: 사회적 승인성			
내 친구들과 나는 서로 비슷한 스타일이나 색상의 옷을 택한다.	-.02	.74	-.02
나는 새 옷을 살 때 친구들이 싫어하는 옷은 사지 않는다.	.10	.72	.13
모임에 가서 내 옷이 다른 사람과 다르면 불안해진다.	-.02	.68	.18
요인 3: 신체모습향상			
나는 옷으로 신체적 불만을 감추려고 노력한다.	-.02	-.02	.87
나는 내 신체의 불만부분을 가려주는 옷을 고른다.	.13	.15	.84
고유근(Eigen value)	2.57	1.94	1.93
신뢰도(reliability)	.78	.59	.74
누적변량(%)	23.39	41.00	58.50



<그림 2> 신체성장에 따른 신체이미지 및 자기존중감, 외복태도 형성모델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체성장 수준이 신체이미지의 감정적 차원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1-2>는 부분적으로 채택되었다. 성적성숙에서 유의적인 결과가 나타나, 자신의 성적성숙이 같은 연령 또래보다 빠른 경우 자신의 외모를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더 만족하였다. 여고생들은 대부분 성적성숙이 이루어지고 가슴의 성장이 완료되는 시점에서 성적성숙이 늦은 집단이 두드러지게 되어 자신의 성적성숙이 또래 집단보다 늦은 것을 바람직하지 않다고 느낌으로써 자신의 신체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와 불만이 높아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가설 1>의 결과에 의하면, 고등학생들은 또래들 보다 키가 작을수록, 다른 사람들에게 신체에 대한 평가를 많이 받게 되고, 성적성숙이 늦을수록 자신의 신체에 대해 불만족하게 된다.

2) 신체에 대한 타인의 평가와 관련변인과의 관계

신체에 대한 타인의 평가가 신체적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2-1>은 채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체중에 관한 가족과 또래의 비판을 통해 이상적인 신체를 내면화 하게 한다는 Levine 등(1994)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이는 청소년들은 중요한 타인들의 반응

에 따라 그들이 가치 있다고 여기는 속성 또는 행동이 달라지는데, 사회 속에 존재하는 이상적 신체를 자신의 태도로 내면화한 중요한 타인들로부터, 이러한 사회적 신체에 부합되는 정도에 따라 평가받음으로써 사회적 기준을 청소년 자신의 신체적 외모에 대한 가치와 태도로 내면화하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신체에 대한 타인의 평가는 신체이미지의 감정적 차원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2-2>는 채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신체에 대한 가족, 또래의 평가가 신체불만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Guiney & Furlong(1999)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청소년기는 신체적 변화가 가장 큰 특징으로, 자신의 모습이 사회적 준거에 합당하길 원하는 경향이 강하며(Craig, 1992), 신체적·생리적 변화로 인하여 외부의 자극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특징을 지닌다(한상철, 1998). 따라서 청소년들은 타인에 의해 자신의 신체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를 받게 되면, 청소년들은 이들의 평가를 민감하게 받아들여 자신의 신체가 사회적 기준에 적합하지 못한 것으로 받아들여 자신의 신체를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불만족스럽게 여기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신체에 대한 타인의 평가가 자기존중감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2-3>은 기각되었다. 이는, 청소년기는 어느 시기보다도 신체적 자아에 가장 중점

을 두는 시기이므로, 타인에 의한 신체평가를 내면화하여 먼저 신체에 대한 평가에 영향을 미치고, 자신의 신체에 대한 평가가 전반적인 자기평가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신체에 대한 타인의 평가가 자기존중감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가설 2>의 결과에 의하면, 자신의 신체에 대한 평가를 많이 받을수록, 신체적 외모에 대한 사회적 이상을 자신의 가치로 수용하여 내면화하게 되고, 자신의 신체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불만족하게 된다.

3) 신체적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와 신체이미지와의 관계

신체적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는 신체이미지의 감정적 차원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3-1>은 채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Kaiser(1990)가 언급했던 바와 같이, 개인은 사회적 기준을 내면화하여 이에 따라 자신의 신체를 평가한다고 해석 할 수 있다. 즉 사회적 기준을 자신의 가치로 수용하게 되면, 사회적 기준이 자신의 비교기준이 되며, 비교기준과 지각된 자기와의 차이가 클수록, 불만족의 감정이 생기기(Oliver, 1980) 때문이다.

신체적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는 신체이미지의 인지적/행동적 차원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3-2>는 채택되었다. 이는 조선명·고애란(2001)의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Mauss(1935)가 언급했던 바와 같이, 사회 속에는 사회적 신체가 존재하고 개인은 사회의 이상적 신체라는 형태에 대한 내면화된 정신적 태도와 의식을 가지며, 이에 형성된 태도와 의식은 행동을 일으키는 잠재적인 힘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가설 3>의 결과에 의하면, 외모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신체적 외모에 대한 이상적인 사회적 기준을 자신의 가치로 수용하게 되면, 이상적인 사회의 미적 기준은 자신의 신체적 외모를 평가하는 기준이 되어 자신의 신체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며, 이에 의해 자신의 신체에 대한 만족정도가 결정된다. 또한 자신의 가치로 수용한 사회의 미적 기준에 부합

하기 위해 외모에 대한 관심과 관리에 능동적인 성향을 갖게 된다.

4) 신체이미지와 관련변인과의 관계

신체이미지의 감정적 차원은 자기존중감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4-1>은 채택되었다. 이것은 신체자아에 대한 만족감은 청소년기의 주 발달과제인 자기존중감의 형성에 영향을 주고, 신체적 특성에 대한 문제를 크게 느낄수록 신체적 부분과 자기에 대한 부정적 느낌이 더 커진다는 송인섭(1998)의 주장과 일치하는 결과라 볼 수 있다.

신체이미지의 감정적 차원은 의복태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4-2>는 채택되었다. 이는 김양진(1996)의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신체이미지는 의복에 반영되며(Sontag & Schlater, 1982), 긍정적 또는 부정적인 신체이미지는 의복의 선택에 근본적인 영향을 미친다(Creekmore, 1974)는 것을 지지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신체이미지의 감정적 차원은 신체이미지의 인지적/행동적 차원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4-3>은 채택되었다. 이는 조선명·고애란(2001)의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사회비교 결과 생긴 만족 혹은 불만족의 자기감정과 자신에 대한 인지는 이를 유지, 혹은 향상하기 위한 행동적 결과로 이어지기 때문이라는 조근영(1997)의 주장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신체이미지의 인지적/행동적 차원은 자기존중감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4-4>는 기각되었으며, 신체이미지의 인지적/행동적 차원은 의복태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4-5>는 채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조선명·고애란(2001)과 이미숙(2000)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자신의 신체를 유지하고 향상시키는데 적극적이고 능동적일수록 의복을 통해 자신을 과시하고 준거집단에 동조하여 승인을 얻으려 하며 신체모습을 향상시키고자하는 것을 나타낸다.

<가설 4>의 결과에 의하면, 자신의 신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만족할수록, 자신의 외모를 유지하고 향상시키는데 능동적이고 적극적이게 되며, 자신을 존중하고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의복을

통해 자신을 돌보이고, 사회적 승인을 얻으려고 하며, 신체모습을 더욱 향상시키려한다. 또한 자신의 외모를 유지하고 향상시키는데 적극적이고 능동적 일수록 의복을 통해 자신을 과시하고 준거집단에 동조하여 승인을 얻으려 하며 신체모습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5) 자기존중감과 의복태도와의 관계

자기존중감은 의복태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5>는 기각되었다. 자기존중감이 의복태도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김순구·윤학자(1986)의 연구에서의 음의 관련성 또는 여대생을 대상으로 한 Ford & Drake(1982)의 연구에서의 양의 관련성을 나타낸 결과 모두와 일치하지 않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김양진(1996)의 연구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오늘날에는 과거와는 달리 의복은 부족한 자존심을 보충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자존심을 오히려 더욱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의 하나로 사용되기 때문에 그 효과가 상쇄되어 양 또는 음의 직선적인 영향이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된다.

이상의 가설검증에 따른 모델검증결과를 보면, 사춘기의 호르몬 증가에 의해 이루어진 신체성장은 사회의 이상적인 가치기준에 의해 영향을 받아 개인의 신체에 대한 감정과 태도를 형성하고, 이러한 신체이미지에 의해 자기존중감과 의복태도를 형성하였다. 따라서 청소년기의 신체성장은 신체이미지와 자기존중감, 의복태도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규명되었으며, 청소년기의 빠른 신체변화는 신체이미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신체이미지는 그 시대의 사회·문화적인 영향을 받아 형성되는 주관적인 것이며, 청소년기의 주 발달과업인 자기존중감 형성에 영향을 주게 된다. 따라서 청소년기에 긍정적인 신체이미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사회 내에 신체적 외모에 대한 올바른 문화가 형성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3. 예측변인들의 직접, 간접 및 전제 효과

<표 2>~<표 5>의 신체이미지의 감정적 차원과 인지적/행동적 차원, 자기존중감, 의복태도에 대한 예측변인들의 직접 및 전제효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신체이미지의 감정적 차원에는 신체에 대한 타인의 평가가, 인지적/행동적 차원에는 신체적 외모에

<표 2> 신체이미지의 감정적차원에 대한 예측변인들의 직접, 간접 및 전제효과

예측변인	신체이미지의 감정적 차원			
	직접효과	간접효과	전제효과	간접효과 경로
성적성숙	.054**	•	.054**	
신체에 대한 타인의 평가	-.64***	-.08*	-.72***	타인의평가→사회·문화적태도→감정적차원
신체적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태도	-.19**	•	-.19**	

*p<.05, **p<.01, ***p<.001

<표 3> 신체이미지 인지적/행동적 차원에 대한 예측변인들의 직접, 간접 및 전제효과

예측변인	신체이미지 인지적/행동적 차원			
	직접효과	간접효과	전제효과	간접효과 경로
성적성숙	•	.013*	.013*	성적성숙→감정적차원→인지적/행동적차원
신체적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태도	.65***	-.05*	.60***	사회문화적태도→감정적차원→인지적/행동적차원
신체이미지 감정적 차원	.25***	•	.25***	

*p<.05, **p<.01, ***p<.001

〈표 4〉 자기존중감에 대한 예측변인들의 직접, 간접 및 전체효과

예측변인	자기존중감			
	직접효과	간접효과	전체효과	간접효과 경로
키	.	.001*	.001*	키→타인의평가→감정적 차원→자기존중감(.0003) 키→타인의평가→사회문화적태도→감정적차원→자기존중감(.0004)
성적성숙	.	.026**	.026**	성적성숙→감정적차원→자기존중감
신체에 대한 타인의 평가	-.11	-.35***	-.47***	타인의평가→감정적차원→자기존중감(-.31) 타인의평가→사회문화적태도→감정적차원 자기존중감(-.04)
신체적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태도	.	-.10*	-.10*	사회문화적태도→감정적차원→자기존중감
신체이미지 감정적 차원	.49***	-.001	.49***	

*p<.05, **p<.01, ***p<.001

〈표 5〉 의복태도에 대한 예측변인들의 직접, 간접 및 전체효과

예측변인	의복태도			
	직접효과	간접효과	전체효과	간접효과 경로
성적성숙	.	.030**	.030**	성적성숙→감정적차원→의복태도(.02) 성적성숙→감정적차원→인지적/행동적차원→의복태도(.01)
신체적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태도	.	.39***	.39***	사회문화적태도→인지적/행동적차원→의복태도(.50) 사회문화적태도→감정적차원→의복태도(-.08) 사회문화적태도→감정적차원→인지적/행동적차원→의복태도(-.03)
신체이미지 감정적 차원	.40***	.20**	.56***	감정적차원→인지적/행동적차원→의복태도
신체이미지 인지적/행동적 차원	.77***	.	.77***	

*p<.05, **p<.01, ***p<.001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체에 대한 타인의 평가는 신체적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를 거쳐 신체이미지의 감정적 차원에 영향을 미쳤다. 또한 신체성장 수준은 성적성숙이 신체이미지의 감정적 차원에는 직접적으로, 인지적/행동적 차원에는 감정적 차원을 거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자기존중감에는 신체이미지의 감정적 차원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으며, 신체이미지의 인지적/행동적 차원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체에 대한 타인의 평가는 자기존중감에 유의적으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으나, 신체이미지의 감정적 차원을 거치는 경로와 신체적 외모에 대한 사회·

문화적 태도와 신체이미지의 감정적 차원을 거치는 경로를 통해 자기존중감에 영향을 미쳤다. 신체적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는 감정적 차원을 거쳐 자기존중감에 영향을 미쳤는데, 이러한 결과는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것, 문화적으로 규정된 기준은 열망과 이상을 마음에 품게 해주며 자신에 대한 평가의 기준이 되므로(강혜원, 1995). 우리사회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여겨지는 미적 기준은 개인의 신체에 대한 평가 기준이 되어 자신의 신체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이러한 신체에 대한 평가는 자신의 평가에 반영되기 때문이다. 신체성장 수준 측면 중 성적성숙이 신체이미지의 감정적 차원을 거쳐 자기존중감에 영향을 미쳤으며, 키는 신체에 대한

타인의 평가와 감정적 차원을 거치는 경로와 신체에 대한 타인의 평가, 신체적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신체이미지의 감정적 차원을 거치는 경로를 통해 자기존중감에 영향을 미쳤다.

의복태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신체이미지의 인지적/행동적 차원이었으며, 신체이미지의 감정적 차원은 직·간접적으로, 신체적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와 성적성숙은 간접적으로 의복태도에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여자고등학생들은 성적성숙이 늦을수록 자신의 신체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갖게 되어 의복에 대한 태도도 낮아지게 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상의 결과로 볼 때, 청소년기의 신체성장이 신체이미지, 자기존중감, 의복태도형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밝혀져, 신체의 생물학적 요인이 개인의 자아형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규명되었다. 또한,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형성된 신체에 대한 이상적인 기준이 중요한 타인 등의 사회화 매체를 통해 청소년들의 자아형성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한 사회의 문화에 의해 개인의 자기개념이 영향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신체이미지는 청소년기에 경험하는 신체변화에 의해 영향을 받는 즉, 신체변화에 따라 달라지는 동태적인 개념을 가지며, 성장과정에서 그 시대의 이상적인 미와 유행 등의 사회·문화적인 측면의 영향을 받아 형성되는 주관적인 것이며, 청소년시기의 중요한 발달과업인 자기존중감과 의복태도형성에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성적성숙이 의복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청소년기의 신체변화에 의해 신체 및 외모에 관심이 집중됨으로써 의복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기 여학생들의 신체성장과 이차성징의 발현과 같은 신체성장이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기준의 영향을 받아 신체적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를 형성하고, 이에 의해

신체적 자기가 영향을 받고 나아가 이러한 신체적 자기에 의해 자기개념과 의복태도가 형성되는 과정을 규명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를 위하여 발달과정상 신체변화를 경험하는 시기에 있는 여고생 43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SPSS PC⁺와 LISREL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의복태도는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의복과시성, 사회적 승인성, 신체모습향상의 3개 요인으로 출되었다.

둘째, 사춘기 여자청소년의 신체성장이 사회·문화적 영향에 의하여 자기개념과 의복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이론적 설계를 검증하기 위하여 공변량구조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가설검증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신체성장 수준의 세 측면 중 키는 신체에 대한 타인의 평가에 음의 영향을 미쳤으며, 성적성숙은 신체이미지의 감정적 차원에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신체에 대한 타인의 평가는 사회·문화적 태도에 양의 영향을, 신체이미지의 감정적 차원에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자기존중감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3) 신체적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는 신체이미지의 감정적 차원에는 음의 영향을, 신체이미지의 인지적/행동적 차원에는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신체이미지의 감정적 차원이 자기존중감과 의복태도, 신체이미지의 인지적/행동적 차원에 양의 영향을 미쳤으며, 신체이미지의 인지적/행동적 차원은 자기존중감에는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의복태도에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5) 자기존중감은 의복태도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공변량구조분석 결과의 직·간접 및 전체효과를 살펴본 결과, 신체이미지의 감정적 차원에는 신체에 대한 타인의 평가가, 신체이미지의 인지적/행동적 차원에는 신체적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존중감형성에는 신체이미지의 감정적 차원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으며, 인지적/행동적 차원의 영향은 나타나지 않았고, 신체에 대한 타인의 평가와 신

체성장 요인인 키와 성적성숙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복태도형성에는 신체이미지의 인지적/행동적 차원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으며, 감정적 차원은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사회·심리적 발달을 다루는 연구에서 무시되어왔던, 사춘기 신체발달이 자기개념의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규명하여, 인간의 자아발달에서 신체적 개념이 갖는 관계와 의미 즉, 청소년기의 신체발달이 사회·심리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과 그 중요성을 밝혔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또한, 신체적 성숙과 행동적응의 문제가 야기되는 청소년기의 신체이미지의 발달적인 측면에서 신체, 자아, 사회·문화적인 통합연구를 하였다는데 학문적인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본 연구의 결과는 성장기에 있는 청소년의 외모에 관련된 심리적, 신체적 건강이나 사회적 적응문제를 미연에 예방하거나 효과적인 사후 처방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자료수집이 임의표집에 의하여 이루어졌으며, 서울시에 거주하는 여자 청소년들만으로 한정되었기 때문에, 본 연구의 결과를 전체 청소년에게 확대하여 적용하는 데에는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 신체급성장과 체중증가 및 이차 성 특징의 발달을 장기간에 걸쳐 종단적으로 측정하여 청소년들의 심리·사회적 적응과의 관계를 알아보고, 사춘기 신체 변화의 어떤 변인이 심리·사회적 적응에 영향을 주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 참고문헌

- 강혜원(1995). 의상사회심리학. 서울: 교문사.
- 고애란, 이수경(1998). 여고생의 의복행동과 자기효능감 및 감각추구성향과의 관련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2(7), 931-941.
- 김순구, 윤학자(1986). 자아존중감이 의복행동에 미치는 영향 -남·녀 고교생을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10(1), 1-8.
- 김양진(1996). 유행의복 이미지가 개인의 자아개념과 의복태도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민영순(1979). *발달심리학*. 서울: 교육출판사.
- 박영남(1993). 고교생의 자아상에 관한 연구. 대구 YMCA 청소년문제연구소.
- 송명자(1995). *발달심리학*. 학지사.
- 송경자, 김재숙(1999). 신체이미지·신체왜곡 및 자아존중감이 의복행동에 미치는 영향 -태도적·지각적 신체이미지 측정을 중심으로-. *복식문화연구*, 7(5), 68-79.
- 송인섭(1998). 인간의 자아개념 탐구. 서울: 학지사.
- 윤 진(1993). *청소년심리학*. 한국 청소년 개발원. 도서출판 서원.
- 이계원(1994). 청년기의 신체상이 자기만족, 불안 및 자기표현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미숙(2000). TV미디어가 청소년의 신체이미지와 의복행동 및 연예인 모방행동에 미치는 영향. 충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조근영(1997). 광고모델의 신체적 매력이 수용자에 미치는 효과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조선명, 고애란(2001).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와 신체이미지가 의복추구혜택에 미치는 영향-청소년기 여학생의 연령집단별 차이비교-. *한국의류학회지*, 25(7), 1227-1238.
- 한상철(1998). *청소년학 개론*. 중앙적성출판사.
- Alsaker, F. D. (1992). Pubertal timing, overweight and psychological adjustment.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12, 396-419.
- Alsaker, F. D. (1995). Timing of puberty and reactions to pubertal changes. In M. Rutter(Ed.), *Psychosocial disturbances in young people: Challenges for preven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 Brooks-Gunn, J., & Warren, M. P., Rosso, J., & Gargiulo, J. (1987). Validity of self-report measures of girls' pubertal status. *Child Development*, 58, 829-841.

- Cash, T. F. (1990). Multidimensional body-self relation questionnaire. In Thompson, J. K. *Body image disturbance: Assessment and treatment*. Pergamon Press. 1990.
- Conger, J. J. (1991). *Adolescence and youth*(4th ed.). N. Y.: Harper & Row.
- Craig, G. J. (1992). *Human development*(6th ed.). Englewood Cliffs, N. J.: Prentice Hall.
- Creekmore, A. M. (1974). Clothing related to body satisfaction and perceived peer self. *Research Report* 239, Michigan: Technical Bulletin, Michigan State University Agricultural Experiment Station.
- Elder, G. H. Jr. (1968). Achievement motivation and intelligence in occupational mobility: Longitudinal analysis. *Sociometry*, 31, 327-354.
- Festinger, L. (1954). A theory of social comparison processes. *Human Relations*, 7, 227-235.
- Ford I. M. & Drake, M. F. (1982). Attitudes toward clothing, body and self: A comparison of two group.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11(2), 189-196.
- Guiney, K. & Furlong, N. E. (1999/2000). Correlates of body satisfaction and self-concept in third and sixth graders. *Current Psychology: Development · Learning · Personality · Social Winter*, 18(4), 353-367.
- Harter, S. (1990). Self and identity development. In S. S. Feldman & G. R. Elliott(Eds.). *At the threshold: The developing adolescent*.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Heinberg, L. J., Thompson, J. K., & Stormer, S. M. (1995).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sociocultural attitude towards appearance questionnaire. *International Journal of Eating Disorders*, 17(1), 81-89.
- Kasier, S. B. (1990). *The Social psychology and clothing : Symbolic Appearance in context*(2nd ed. Revised), N. Y.: Fairchild Publications.
- Levine, M. P., Smolak, L., & Hayden, H. (1994). The relation of sociocultural factors to eating attitudes and behaviors among middle schoolgirls.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14, 471-490.
- Maslow, A. (1970). *Motivation and personality*. N. Y. : Harper.
- Mauss, M. (1935). Les techniques du corps.(The techniques of the body) *Journal de Psychologie Normale et Pathologie*, 32. Translated by Ben Brewster, 1973. *Economy and Society*, 2, 70-88. Kasier(1990)에서 재인용.
- Meijboom, A., Jansen, A., Kampan, M., & Schouten, E. (1999). An experimental test of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esteem and concern about body shape and weight in restrained eaters. *International Journal of Eating Disorder*, 25, 327-334.
- Oliver, R. L. (1980). A cognitive model of the antecedents and consequence of satisfaction decision.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27, 460-469.
- Petersen, A. C., Crockett, L., Richards, M., & Boxer, A. (1988). A self-report measure of pubertal status: reliability, validity, and initial norm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7, 117-133.
- Richards, M. H., Boxer, A. M., Peter, A. C., & Albrecht, R. (1990). Relations of weight to body image in public girls and boys from two communities. *Developmental Psychology*, 26, 313-321.
- Rosenberg, M. (1965).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N. 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Rudd, N. A., & Lennon, S. J. (1994). Aesthetics of the body and social identity. *International Textiles and Apparel Association*, 7, 163-175.
- Schiambra (1988). *Child and adolescent development*. N. Y.: Macmillan Publishing Co.
- Sontag, M. S., & Schlater, J. D. (1982). Proximity of

- clothing to self : Evolution of a concept.
Clothing and Textiles Research Journal, 9(3), 35-44.
- Stice, E., Shaw, H. E., & Nemeroff, C. (1998). Dual pathway model of bulimia nervosa: Longitudinal support for dietary restraint and affect-regulation mechanisms.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17, 129-149.
- Stuart, G. W. (1983). *Principle and practice of psychiatric nursing*. St. Louis: Mosby.
- Stuart, G. W., & Sundeen, S. J. (1995). *Principle and practice of psychiatric nursing*(5th ed). St. Louis: Mosby.
- Williams, J. M. & Currie, C. (2000). Self-esteem and physical development in early adolescence: Pubertal timing and body image.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20, 129-149.

(2004년 5월 21일 접수, 2004년 9월 8일 채택)